

발레·국악·뮤지컬·버블 매직쇼 한자리서 본다

광주문예회관, 10월 1~5일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광주시립예술단·민간예술단 등 참여 24회 공연 개관 30주년 기념 4일 피아졸라 킨텃 내한공연도

발레 '빛의 정원 356', 아스토르 피아졸라 킨텃 내한 공연, 가수 하림의 '아프리카 오버랜드'... 발레부터 국악, 뮤지컬, 버블 매직쇼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광주문예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를 준비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그라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문예회관 대극장 앞 잔디광장 특별무대와 소극장에서 열린다.

문예회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그라제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만큼 올해는 더욱 새롭고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위로! 위로!'다.

이번 축제에는 광주시립예술단, 민간예술단 등 다양한 예술단이 참여해 총 24회의 공연을 펼친다. 대극장 리모델링 관계로 소극장과 잔디광장 특별무대 등으로 공간을 구성, 시간차를 두고 운영해 좌석 거리두기와 방역은 물론 관객들의 동선을 분산하고, 취향에 맞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광주시립예술단 공연에는 교향악단, 발레단, 창극단 등 6개 단체가 참여해 잔디광장 특별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10월1일 오후 4시 열리는 첫 공연은 발레단의 특별기획공연 '빛의 정원365'로 자연의 정원을 '풀잎 정원', '비밀의 정원', '낮 달 뜨는 정원', '희망 정원' 등 봄여름가을겨울 사계로 구성한 작품이다.

교향악단은 같은날 오후 5시 '금관 앙상블' 공연을 선보인다. 비틀즈 '렛잇비', 엔니오 모리코네 '미션' 등과 아바 메들리를 들려준다. 소년소녀합창단은 비틀즈의 추억의 명곡들과 방탄소년단의 화려한 댄스 음악 등을 합창으로 만날 수 있는 'The Beatles and BTS' (2일 오후 5시)를 준비했다.

창극단은 한국의 소리와 무용, 기악을 모두 아우르는 '신의 소리', 판소리 '흥보가'를 새롭게 각색해 선보이는 단막 창극 '놀보와 마당쇠' 등을 무대에 올리는 '그라제 국악 한마당' (3일 오후 5시)

이며 무대를 꾸미며, 국악관현악단은 통속민요를 엮은 모음곡 '민요의 향연'을 시작으로 '정읍사', '박타령' 등을 들려주는 '리브 콘서트' (4일 오후 5시)로 관객과 만난다. 합창단은 '해 저무는 시간, 감성으로' (5일 오후 7시)로 축제 마지막 밤을 장식한다. '윌리엄 텔 서곡'을 비롯해 '각정 말야오 그대', '웨딩케이크',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노래하며 가을 밤의 정취와 감성을 전한다.

민간예술단체 공연에는 클래식, 뮤지컬, 가곡 음악극,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팀이 출연한다.

문예회관 개관 30주년 기념공연인 아스토르 피아졸라 킨텃 내한공연은 10월4일 오후 7시30분 소극장에서 열리며 이날 공연에서는 '돈'을 시작으로 '신기한 푸가', '광란의 밀퐁가', '향구의 겨울', '아디오스 노니노', '전사의 죽음' 등을 들려준다.

이밖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셀마 라게를뢰프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 '트름의 아이' (1일 오후 7시30분·2일 오후 3시·7시30분)를 무대에 올리며, TIMF앙상블의 가족 음악극 '피노키오의 모험' (3일 오후 7시30분), 싱어송라이터 하림과 함께 음악으로 떠나는 아프리카 여행 '아프리카 오버랜드' (5일 오후 7시30분), 유쾌한 락 뮤지컬 '프리즌' (1~4일 오후 7시) 등도 만날 수 있다.

지역예술단체 무대에는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를 비롯해 환경 퍼포먼스 그룹 유상통 프로젝트가 관객참여형 공연을 펼친다. '찾아가는 아프리카 음악과 춤의 여행' (2일 오후 6시), '짜운드 써커스' (3일 오후 6시), '체험형 공연- 리듬의 정

원' (4일 오후 6시) 등 아프리카 전통 리듬에 춤과 극이 어우러진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그라제 축제에서 3년 연속 선보이는 인기 프로그램인 '버블 타이거의 버블 매직쇼' (1~5일)의 환상적인 비눗방울 퍼포먼스도 매일 즐길 수 있다.

축제 첫날은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시립발레단은 오픈 클래스를 연다. 첫 번째 오픈 클래스 (사전예약 10명 한정)에서는 발레단 연습실을 방문해 단원들과 함께 발레 기본동작을 체험해보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에 참여하는 아스토르 피아졸라 킨텃은 10월4일 공연한다.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는 10월2~4일 아프리카 전통 리듬에 춤과 극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인다.

고, 발레에 대한 해설도 함께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리허설 오픈 클래스에서는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4일에는 타악그룹 아나포의 체험형 공연 '리듬의 정원'에서 전통 타악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선착순 30명 모집.

잔디광장 특별무대 공연은 전체 무료이며, 소극장 공연은 1~5만원이다. 광주문예예술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예매는 티켓링크 (1588-7890)를 통해 가능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광주 서구문화원 선정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35억원 규모의 2022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구문화원은 2019년 이후 4년 연속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17개 시도 지역 17개 단체에 대한 선정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서구문화원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34억 9200만원 예산 규모의 광주지역 학교예술강사 지원 및 기획사업 등을 수행할 단체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서구문화원은 광주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490여 학교에 8개 분야 350여명 예술강사를 배치해 문화예술교육 등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동아리,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서구문화원은 35억 규모 예산으로 2021년 학교예술강사 259명의 인력을 255개 학교에 지원, 파견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획사업 '신비한 예술학교'를 통해 10개 단체에 6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건축·도시문화제 사진공모전 내달 1일 마감

제18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 사진공모전이 오는 10월1일 마감된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광주시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광주·전남 지역 내 건축과 도시 공간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사진 부문과 스냅사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2019년 이후 촬영한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비는 없으며 1인 2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일반 사진 부문 대상(1점)에는 상금 150만원이 수여되는 등 모두 33점을 선정, 430여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입상작은 오는 11일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오는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는 제18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 기간에 전시한다. 문의 062-521-002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공모전

광주관광재단은 음식이 가장 맛있는 도시, 미향광주의 위상을 알리고 미식관광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광주 미식관광 브이로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남녀노소 접근하기 쉬운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 공모전으로, '광주 미식관광'을 주제로 하고 광주 대표음식 '광주 7미'와 '광주 관광지'가 필수적으로 포함된 5분 이내의 브이로그 영상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한 후, 파일 및 제출서류를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광주관광TV에 업로드 해 미식관광도시 광주를 홍보할 계획이다.

모두 10개의 수상작을 선발하며, 대상 200만원 등 모두 55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29일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준공 회향식

2016년 해체 후 보존 처리 석재 재사용 역사적 가치 높여

8세기 통일신라시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국보 제35호·사진)은 경주 불국사 다보탑과 함께 우리나라 이형(異形) 석탑을 대표하는 탑이다. 2층으로 높게 만든 기단 위에 3층 탑신부와 상륜부로 구성돼 있으며, 상층기단에 네 마리 사자가 상부를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일반적인 삼층석탑과는 다른 조형미가 일품

이며 석조조각과 불교미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지난 2016년 해체된 이후 정밀 보존처리를 마친 '국보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준공 회향식'이 오는 29일 오후 1시 화엄사에서 열린다.

회향식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향식은 석탑 보존처리 등을 완료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따른 기념행사로, 특히 원래 석재를 대부분 재사용해 석탑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한 점이 눈에 띈다. 완공된 석탑의 전체 높이는 7.1m, 너비는 4.2m, 무게는 약 50t에 이른다.

석탑 하층기단 사면에는 천인상이, 1층 탑신석에는 인왕상, 사천왕상, 보살상 등이 수려하게 조각돼 있다. 아울러 석탑과 마주보고 있는 석등에는 각각 인물상(또는 승상)이 존재하는데 화엄사 창건자로 알려진 연기조사와 그의 모친이라는 설, 스승과 제자라는 설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석탑은 지난 2011년 구례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남동쪽으로 기운데다 기단부 균열 등 다수의 구조적 불안정이 확인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체보수가 결정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